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라!(도약27)
삼하 6:12-15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대표적인 신앙의 선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삼상 18:12).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삼하 5:10).
그러나 다윗의 초기이력서는 간단하고 초라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 이새의 여덟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주로 들판에서 양을 치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삼하 6:21; 삼상 16:1).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시 78:70).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크고 존귀한 자로 쓰셨는지, 신약의 첫 권 첫 장 첫 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시골 목동 출신이었지만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4장의 분량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에 관해서는 66장의 분량이 할애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자그마치 897번이나, 신약성경에서는 55번이나 다윗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내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이야"(He is the one)라고 선포하실 정도였습니다(삼상 16:12).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자를 찾고 계셨는데,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삼상 13:14; 행 13:22).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인류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 건설의 거대한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실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는 믿음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반드시 신앙과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할 두 가지 요소를 나누겠습니다.

1. 첫째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본문 12절 후반 "...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벧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본문 14-15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 에봇을 입었더라 15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사실 다윗은 완전무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성자이자 동시에 가장 큰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선과 악의 꼭지점에서 위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의 강함을 존경하면서도 그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기

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그의 심령에 늘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시 63:1).

비록 다윗이 엄청난 과오와 실수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중심, 즉 심령을 헤아려 보셨습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의협심이 강렬했습니다. 가령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할 때 그는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삼상 17:36).
또한 자신의 호화로운 왕궁보다 여호와의 초라한 장막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그날까지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전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비축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에 전심전력했습니다(행 13:36).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왕비 미갈이 업신여기며 바라봄에도..., 바지춤이 흘러내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삼하 6:20).
이런 순수한 사랑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감탄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u>내 마음에 합한 자라</u>.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행 13:22).
이는 헬라어 문자적으로 "나의 마음(헬, καρδία: 카르디아)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심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하게 일치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도약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2. 둘째 <u>하나님의 법대로 따르십시오</u>
본문 13절 "<u>여호와의 궤를 멘 사람들이</u> 여섯 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1)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광야에서 운반할 때와 같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율법 규정에 따라 구별된 방식으로 운반했습니다.
“13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하고
15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니라”(대상 15:13-15).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 그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이 법궤를 비롯한 성물의 운반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멜 것이며”(민 4:15).
또한 법궤 네 모퉁이에 있는 금 고리에 조각목(아카시아 나무)으로 만들고 금으로 싼 채(긴 막대기)를 꿰어, 어깨에 메고 걸어서 이동했습니다(출 25:14-15).
더욱이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법궤를 직접 보거나 만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이동을 시작할 때는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 성소의 휘장을 걷어 법궤를 덮었습니다.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다시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 법궤가 외부로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3중 덮개로 엄격하게 가렸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야 비로소 고핫 자손이 들어와 어깨에 멜 수 있었습니다(민 4장, 출 25장).

2)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 법궤를 옮길 때는 이 같은 법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식처럼 새 수레에 싣고 소가 끌게 했습니다. 그러자 소가 뛰놀아 법궤가 떨어지려 할 때, 웃사가 손을 대어 법궤를 붙잡았고, 하나님이 웃사를 그 자리에서 치시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 '베레스 웃사'의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정해진 규정대로 거룩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기쁜 목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한 방식을 무시하고 편의나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웃사'는 히브리어로 '힘, 능력, 위엄'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의지하던 교만을 부서뜨려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과를 이루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어떠한 선한 목적을 위해 일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와 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 것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빛교회 민경수목사드림-